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정 후 식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특히 4·11 총선은 그 결과가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6일 현재 총선 예비후보는 전국 245개 선거구에 1722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7대 1을 넘어섰다. 광주·전남지역도 20개 선거구에 111명에 달해 치열한 공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남은 관건은 후보자를 어떻게 가려내느냐이다.

### 여야 '공천권을 국민에게'

여야는 선거 때마다 '공정한 경선, 투명한 공천'을 외쳐왔다. 하지만 매번 어김없이 후유증을 남겼다. 기존의 공천제도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출세우기 및 계파정치 등 관행적인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탓이다. '상향식 공천'이 단골 구호였지만 일부 핵심인사들에 의한 '밀실 공천'으로 결과는 늘 '하향식'이었다. 공천심사위는 장식물에 불과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

합당은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국민경선)를 골자로 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에서 유래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 정당정치, 국민경선에 달렸다

당원과 동등하게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밀실 공천과 공천 비리를 척결할 대안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개방형 국민경선제' 방식의 당내 경선을 80%로 하고, 전략공천을 20%로 하는 공천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전체 지역구의 80%인 196곳에서 '핵심당원 20%, 일반국민 80%'의 비율로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경선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국민경선'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하되, 전략공천을 최대 30%(74

곳)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공천 원칙을 확정한 상태다.

양 당이 추진하는 국민경선은 총선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국민에게 넘겨주는 장치다.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정치를 약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민의에 따라 인재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정당 입당에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함으로써 당 선출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난 1·15 전당대회에서 당내 경선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흥

행 대박을 터트린 민주통합당은 나아가 총선 지역구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인터넷 투표로 사전에 모집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공천 혁명'의 핵심 카드로 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가 부각되고 있지만 인터넷 투표로 사전에 모집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공천 혁명'의 핵심 카드로 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가 부각되고 있지만 인터넷 투표로 사전에 모집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른 노장년층과 농어촌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지난 민주통합당 전대의 모바일투표 신청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44.4%로 과반수에 육박한 반면, 40세 이상은 55.6%였다. 노장년층이 모바일 투표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전남 지역 농어촌은 60대 이상 고령 유권자가 많아 이들의 표심 반영이 쉽지 않다. 모바일 경선이 정책과 비전보다는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 포심 왜곡 막을 장치들

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가 지난 한해에도 공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불·탈법을 막고, 엄정한 경선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공천 체신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정당정치의 위기로, 정치현상이 극에 달했다지만 최근 젊은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 높아가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 구태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신뢰를 회복한다면 정치권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역설적이지만 정당정치의 미래가 국민참여경선의 성공 여부에 달린 셈이다.

<경경부장> who@kwangju.co.kr

## 시 설

### 위기의 광주 광산업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광주 광(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크게 둔화된 데다 올해 국가 지원예산도 끊기게 돼 지난 10여년간 급성장한 광산업이 침체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최근 광주지역 광산업체를 점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총 매출액은 2조6101억 원으로 전년도의 2조5400억 원보다 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매출이 57.2%(9243억 원)나 신장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광산업의 반전은 주력분야인 광원 및 광전소자 등 고점을 면치 못한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이 1조6533억 원으로 전년도 1조7428억 원보다 5.1%(895억 원)나 감소했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LCD패널과 LED분야 수출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광산업은 광주의 성장 동력산업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미래가 밝지 않다. 기업이 대부분 영세해 원천기술 개발보

다는 단순 조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있는 LED조명 등에 업체가 몰리면 저가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도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올해 광산업 3단계 사업이 끝

나면 국가 지원예산도 끊기게 된다. 대외적인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기업이 투자를 외면하고, 유관업체가 별로 없어 관매나 기술력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으니 지역 광산업의 추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전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강화와 광주 광산업 4단계 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육성책을 강구해야 한다.

광주시 역시 광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기업 골목상권 잠식 더 이상 안 된다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기업의 잇따른 광주 입점 추진을 놓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이 갈수록 도를 넘어가고 있음은 물론, 이는 곧 영세상인들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은 6일 광주 광산구 롯데마트 2010년 매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추가 입점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롯데쇼핑은 최근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부지

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서를 북구청에 요구했다. 이마트도 현재 북구 매곡동 입점 추진 건으로 소송 중

에 있다. 문제는 입점 추진지 인근에 동일기업 대형점이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추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쇼핑의 이번 입점 추진지도 서쪽 2km 지점에 이미 첨단지구 롯데마트가 있고 동쪽 1km 지점에 롯데슈퍼가 있는데도

또다시 진출을 노리고 있다. 더욱이 롯데아울렛 수완점이 이달 중 확대 개점

을 목표로 거세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이 갈수록 도를 넘어가고 있음은 물론, 이는 곧 영세상인들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은 6일 광주 광산구 롯데마트 2010년 매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추가 입점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롯데쇼핑은 최근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부지

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서를 북구청에 요구했다. 이마트도 현재 북구 매곡동 입점 추진 건으로 소송 중

에 있다. 문제는 입점 추진지 인근에 동일기업 대형점이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추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쇼핑의 이번 입점 추진지도 서쪽 2km 지점에 이미 첨단지구 롯데마트가 있고 동쪽 1km 지점에 롯데슈퍼가 있는데도

## 無 等 鼓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王侯將相寧有種乎).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 무신정권 시대를 이끌었던 최충헌의 사노(私奴) 만적이 1198년 당시 개경의 뒷산에서 함께 나무를 하던 노예들에게 거사를 촉구하며 한 말이다.

노예들의 각성을 촉발한 '왕후장상 영유종호'라는 고사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비롯됐다. 진(秦)나라 말기 하남 출신의 천민인 진승(陳勝)은 포부가 큰 사람이었다. 진시황이 죽은 뒤 2세 황제인 호해가 환관 조고의 손에 놀아나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던 기원전 210년, 조정에서는 이문(里門)지역의 농

민들을 변방인 어양(漁陽) 땅으로 옮겨 가도록 하고, 진승에게 이들 농민을 통솔하도록 했다.

하지만 큰 비로 길이 막히는 바람에 진승은 약속된 시일 내에 도착하지 못했다. 결국 처형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된다. 이에 진승은 자신들을 통솔하던 장교 2명의 목을 벤 뒤 900여 명의 농민 앞

에서 일갈한다. "가봤자 모두 죽는다. 어찌 죽을 바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모두 다 같은 인간일 뿐이다. 우리라고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진승은 이후 여러 영주들을 규합해 '장초(張楚)'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지만 6개월 만에 자신의 마부에게 살해당

영유종호'라는 고사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비롯됐다. 진(秦)나라 말기 하남 출신의 천민인 진승(陳勝)은 포부가 큰 사람이었다. 진시황이 죽은 뒤 2세 황제인 호해가 환관 조고의 손에 놀아나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던 기원전 210년, 조정에서는 이문(里門)지역의 농

민들을 변방인 어양(漁陽) 땅으로 옮겨 가도록 하고, 진승에게 이들 농민을 통솔하도록 했다.

하지만 큰 비로 길이 막히는 바람에 진승은 약속된 시일 내에 도착하지 못했다. 결국 처형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된다. 이에 진승은 자신들을 통솔하던 장교 2명의 목을 벤 뒤 900여 명의 농민 앞



왕후장상의 씨

## 은편칼럼



서미정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이 지났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그해에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 한가지씩을 마음에 품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간다.

필자 또한 그렇다. 작년부터 품었던 그리고 새해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박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모아장애인주간보호시설(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성인 지적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실을 보완하고 자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장애 가족들의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성원의 경제 활동 및 사회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

상)을 이용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사한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매일(월~토) 하루종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임대비의 부담과 비좁은 부엌, 실외에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이용하기 불편한 세면장, 화장실 문제와 불편한 구조를 개보수하고 싶어도 건물주의 동의없이 불가능하고, 당장 불편한 부분을 자부담 들여 개보수하려다 나갈 때 원상복구의 요구, 또 건물주가 당장 나가라고 하면 방을 빼야하는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건물과 땅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 필자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경험하였다.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어떤 용도의 건물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않을 건데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렵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뜨는 부동산 중개업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협의

오시절로 판단하고 자신의 집 옆에는 둘 수 없다는 '납비 현상'이다.

납비현상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집 근처에 설치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 기피현상이다.

관할 행정담당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시설 이전할 때 미리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민원제기 없이 처리해야 하며, 가능지역이라고 해도 지역적 분포가 고루 형성되면 동시시설이 한곳으로 밀집해서도 안 된다는 등.

또 어렵사리 적당한 건물을 찾았으나 동마다 지정해놓은 지구단위계획, 택지지구 등으로 건물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시설의 종류인 노유자 시설을 살펴본 후 별도의 관련 법들을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행정절차상에서도 담당 부서마다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를 문의한 후 최종 결정된다.

위와 같은 법규제사항과 납비현상으로 장

애인들은 더 소외되고 시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제한하면 저 산속으로 가라는 말인가?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매일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시설운영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지자체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려면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힘있는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제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가오는 4월 11일은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 민의와 정의를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원칙과 소신으로

다가오는 4월 11일은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 민의와 정의를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원칙과 소신으로

다가오는 4월 11일은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 민의와 정의를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원칙과 소신으로

## 기고



윤영갑

디자인(Design)이라는 말은 '표현하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는 '제품, 공간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문명의 세계에서 보여 지는 모든 생활의 실체는 디자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소유 설치 관리하는 공적영역의 디자인 활동 및 그 결과물은 공공디자인으로 이는 공공공

간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로 구분된다.

공공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과의 조화와 함께 합목적성에 충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로등의 경우 불필요한 디자인과 지나친 부속물로 인한 부조화와 안전성을 저해하기보다는 가로등이 갖고 있는 주된 기능인 광원의 효율성에 그 가치를 최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을 설계할 때는 가장 주된 시설이나 조형물을 결정한 다음 부수적인 것을 디자인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잘못 되었다면 과감히 바꾸거나 개선해야 한다.

디자인과 함께 중요한 것이 색채로 모든 형태, 물체는 색으로 지각되며 색채는 어떠한 다른 요소보다 가장 빨리, 가장 오래, 가장 강하게 기억된다고 한다. 환경개선을 위한 색채 적용기준 및 방향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적인 기능의 공간의 큰 규모에 적용되는 넓은 면적의 색채는 배경색이어야 한다. 배경색이 되기 위해서는 채도를 낮추고 명도를 높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면적 지각효과를 고려하여 교체도의 색상은 좁은 면적에 사용 하여 자극을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판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건물규모에 어울리지 않은 크기에 자신감을 뽐내는 언어보다는 공동의 공간에 흡수되어 하나의 도시 경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간판디자인이 하루빨리 뿌리내려야 한다.

선진 외국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한번쯤 느껴졌지만 특별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문자와 컬러만 봐도 그 지역의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이 도시전체를 재디자인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본 세계 유명도시 60개 도시의 브랜드순위에 서울은 50위권에 속하며 시드니, 런던, 파리, 로마, 뉴욕 등이 상위권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역의 비전은 지역 그 자체가 창출하는 가치로부터 나오며 사회공공성의 질적

수준과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에 있어 특히 중요시되어야 할 모던 트는 채움과 비움이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것만이 디자인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힘쓰지 않는 것, 군더더기를 생략하는 것도 디자인이며 채움 것과 비움 것을 선별하는 것이 성공적인 디자인의 관건이다. 팍 차지 않고 부족한 듯 남아있는 여백에 문화가 채워지고 인정이 숨어지고 미래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백은 채워야 할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여백 그 자체가 실존적 존재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디자인의 가치를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역의 가치창출을 위해 생활 주변의 작은 허물부터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이야말로 디자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디자인을 통한 작은 실천이 지역 그 자체가 창출하는 브랜드 가치로 연결되어 지역 발전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물론 디자인을 통해 국가의 정래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임을 다 함께 생각했으면 한다.

<강진군청>

### 녹색시대 역행하는 도시의 밤거리 과도한 조명 자제를

도시를 일컬어 불야성이라고 말한다. 한 밤중에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켜놓은 화려한 네온사인애가 간판, 실내 조명이 대도시를 대낮처럼 밝힌다. 그뿐 아니라 국가에서 설치한 가로등까지 합하면 도시의 밤거리는 완전 대낮보다 더 밝을 정도다.

실현에서 한쪽은 약한 조명으로 잠잠 준비를 하다 모든 불빛을 차단했고, 다른 쪽은 조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강렬한 조명이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편은 이런 문제 때문에 TV에서 조명 불빛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과학적으로 실험한 적이 있다.

실험에서 한쪽은 약한 조명으로 잠잠 준비를 하다 모든 불빛을 차단했고, 다른 쪽은 조

명을 환하게 켜고 있다 TV만 켜둔 채 잠을 자도록 해봤다. 그러자 두 사람이 잠들기까지

이른 어두운 방에서는 뇌파가 안정적이어서 숙면을 취한 것인데, 불빛에 노출된 방은 뇌파가 불규칙해 자다 깨다를 반복한 것이다. 이것은 생리학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잠자기 2시간 전에 과도한 불빛에 노출되면 생체 리듬이 교란돼서 더 일찍 잠들 수 있는 사람도 늦게 자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또한 과도한 불빛은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실험한 결과인데 가로등 불빛이 강한 마을의 여성들이 깜깜한 마을에 사는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37% 더 높게 나타났다.

밝은 게 어둡고 컴컴한 것보다는 낮지만 지나치게 밝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조명으로 바꾸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남보라·광양시 도이동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